[게임대사\_V1.02\_240131]

<챕터1>

(게임 시작)

~~b: (두리번 거리며) 못찾겠다 꾀꼬리~! a! 어딨어어?~~

~~a: (부르는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이불에서 나온다) 후후, 내가 이겼다~~~

~~나 내방에 있어어!~~

~~b: 알겠어어! 일단 나 올라갈게!~~

~~a: 응! 중간에서 만나자~!~~

(길이 상자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)

~~a: 으음, 길이 막혔잖아? 상자를 밀면서 가야겠는걸?~~

~~(오르골 이용하는 곳)~~

b: 어라, 오르골이 여기 왜...? (무심코 오르골을 돌리니 능력이 발동된다)

(b의 방)

~~a: 오르골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, 다행이다... 고마워 b!~~

~~b: 후후, 앞으론 잃어버리지 마!~~

~~a: 응! 그나저나 아까 음악의 요정같았어! 역시 b는 대단해!~~

~~어랏, 저게 뭐지? (악보 조각을 발견)~~

~~b: 잘린 오르골 악보인 것 같은데....?~~

~~a: 한번 돌려볼까? (오르골과 악보조각을 결합)~~

(머리속에 문득 생일날의 기억이 떠오른다)

~~a: 우잇, 여기서 뺑뺑이를 돌다니!~~

~~b: 후훗,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~!~~

~~아버지: 얘들아~! 아버지표 반반 케이크! 완성이오~~~

~~어서들 오거라~~~

~~아이들: (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다가) 네에~!~~

~~(집으로 달려감)~~

(일러스트)

다같이: 생일축하합니다~ 사랑하는 a, b~ 생일축하합니다~

아이들: 하나, 둘! 후~

어머니: 케이크 먹고 선물 풀어보고 있으렴~

엄마는 설거지 좀 하고 올게

아버지: 나도 돕겠소

(일러스트 종료)

b: 초코비행기 출발합니다~ 슈웅~

a: 와앙~ (케이크를 먹으며)

음~ 역시 아빠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좋아!

b: 히히, 맞아!

a: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?

b: 어서 열어보자!

a: 응! 하나 둘...!

(a는 오르골, b는 인형이 들어있다)

a: 우와아... 오르골이다!

b: 인형 귀엽다... 엄마, 아빠 감사합니다!

a, 너도 감사하다고 해야지!

a: 앗 맞다! 감사합니다~!

아버지: 허허,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.

어머니: 참, 이럴 때 보면 b가 한참은 누나같다니까요?

일때문에 아이들만 있을때도, b가 있어서 든든해요.

b: ....! (그말을 듣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) 히히, 인형에게 맹세합니다.

앞으로 나 b는 a를 지켜주는 멋진 누나가 되겠습니다!

(회상 끝)

a: 우왓,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졌어!

b: 정말? 신기하다!

일단 우리 게임 잠깐 하고있을까?

a: 그래 좋아!

(b의 방에서 미니게임 후)

b: 이번엔 뭐하고 놀지?

a: 흠, 피터팬 놀이는 어때?

b: 피터팬 놀이?

a: 환상의 나라에 침입한 괴물을 물리치는 놀이야!

b: 와~ 재밌겠다! 나는 그럼 요정할래!

(나는 시늉을 하며)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~!

a: 요정은 마법의 도구도 있어야 하니까, 오르골은 b한테 빌려줄게!

아까처럼 마법으로 괴물을 물리치는거야!

b: (웃으며) 고마워 a. 아끼는 물건일텐데, 소중히 다룰게!

a: 히히, 그럼 나는 피터팬 해야지!

피터팬의 그림자로 괴물을 물리치겠어!

b: 멋지다~! 그럼 모험을 떠나볼...

(갑자기 문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며,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부셔진다.)

<챕터2>

(괴물 등장)

a: 저, 저건 뭐지...??

b: 진짜 괴물이잖아...!

a: 이럴수가... 내가 한 말이 진짜가 되어버리다니.

b: 빨리 1층으로 도망가자!

(괴물이 상자를 던져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힌다.)

a: (걱정하는 표정으로) 으어, 어, 어떡해...! 길이 막혀버렸잖아

b: 일단 화장실로....!!

<챕터3>

(안방에서)

부모님: 싸우는대사

(

a: (울먹거리는 모습) 엄마랑 아빠랑 싸워...?

이러다가 같이 안 살면 어떡해...?

b: ...! (어두운 표정으로 입술을 꽉 물었다가 다시 a를 보며)

...우리 일단 방에 가자

(주방에서)

a: